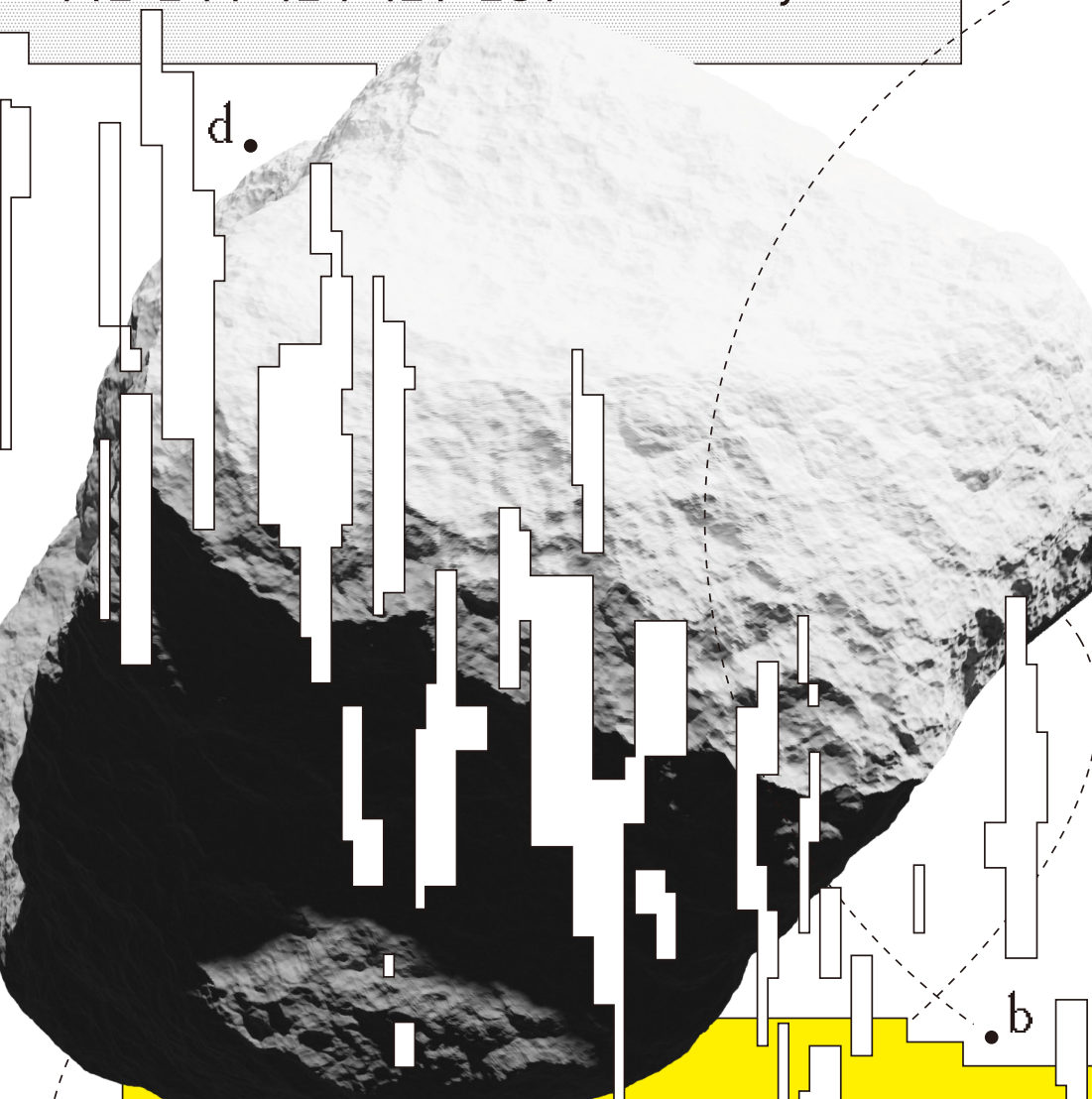


대안공간 루프 Alternative

Space LOOP 2023.2.18 - 2.27

김범수 박지나 신승연 이주현 임수빈 Chris Myhr
김성헌 박천욱 오태원 이지훈 정수용 Irene Pérez Hernández
김재남 방정호 윤희수 이채빈 최철 Iting Hou
남기성 백근영 이수홍 이태훈 추은영 Michal Gavish
박가연 변의숙 이연숙 이한수 한승구 Simone Hooymans

국제전 <어떤 형태 Some Form>



주최/주관
사단법인
한국영상미디어협회,
예술과미디어학회

전시감독
김미진
(예술과미디어학회
전시이사)

오픈
2023.02.18.
토요일 17시

큐레이터
이재걸 (총괄)
신승연, 이연숙

코디네이터
박가연, 이지훈

LOOP
ALT SPACE

2023 예술과미디어학회 국제초대기 획전
어떤 형태 **Some Form**

2023 예술과미디어학회 국제초대기획전

< 어떤 형태 Some Form >

대안공간 루프 Alternative Space LOOP, 2023. 2.18~2.27

김미진 | 전시감독

이번 전시 <어떤 형태 **Some Form**>는 지난 2022년도 예술과미디어학회 하반기 학술대회 <조각은 무엇을 원하는가? 조각의 심리적, 실존적, 역사적 열망에 관하여>의 연장선으로, 동시대 미술의 새로운 패러다임 등장에 따른 예술의 다양한 표현방식에 관한 질문이다.

오늘날의 미술은 기후, 재난, 전쟁과 같은 거대 사건들의 실시간 정보를 소재로 삼기에 그 어떤 시대보다 복잡하고 복합적이다. 그리고 작품은 아이디어의 발상에서 완성된 결과까지의 전 과정을 장소, 소통, 네트워크, 플랫폼 등과 연계하여 그 표현 가능성을 끝없이 확장하고 있다. 거대자본과 미디어의 막강한 권력 앞에서도 미술은 여전히 자유로운 상상과 깊이 있는 성찰로 시대성의 본질과 삶의 진정한 가치를 탐색한다.

동시대 미술에서 내용과 형식의 언어적 완결성은 매우 중요하다. 작가는 정치, 사회, 환경, 일상과 긴밀하게 연결된 주제를 탐구하기 위해서 철학, 미학, 미술사, 비평 등을 접하며 고도로 세련된 자기 철학을 만들어 내고 있다. 이렇듯 개인의 정체성 문제와 시대정신이라는 특수성에 따라 세분된 동시대 미술은 여전히 자신만의 언어와 스타일을 만들어 내는 고급예술의 면모를 지니고 있으며, 따라서 예술의 보급을 위한 전문적인 교육과 대중과의 소통은 매우 중요하다.

이번 전시 <어떤 형태>에서 ‘어떤’은 영어 **some, what**에 해당하며 소재와 주제, 표현과 담론을 폭넓고 다양하게 아우른다는 의미를 갖는다. 그리고 ‘형태 **Form**’는 자연, 인간, 사물의 상(**image**)에서부터 정신적, 영혼의, 내적, 심리적 상까지 포괄하는 하나의 열린 형식이다. ‘어떤 형태’ 안에서 내용과 표현은 특정될 필요가 없기에 작품은 매우 자유롭다. 마치 설익은 생각을 종이 표면에 빠르게 옮기는 드로잉처럼 ‘어떤 형태’는 구체적이지 않은 순수 발상의 시적이고 감각적인 측면을 드러낸다. 오랜 시간 축적된 작가들의 사유와 조형성은 ‘어떤 형태’의 탈주하는 힘을 빌려 해방의 맛과 멋을 발산할 것이다.

<어떤 형태>는 명확한 형상성에서부터 불확정적이고 애매하며 추상적인 형상성까지 모두 내포한다. 주름이나 스펀지, 안개처럼 ‘잡히지 않는 형태’까지 모두 사유의 대상에 편입한다. 총 6개국 30인의 작가가 참여하는 이번 전시는 알 수 없는 시대를 관통하는 존재의 의미를 묻고 또 물으며 우리 현실의 내면을 탐색할 것이다. 전시장소인 루프의 실험적 성격과 함께 전시는 더욱더 생생한 방식으로 섬세하고 역동적인 이 시대의 예술을 보여줄 것이다.

2023 The Korean Society of Art and Media, International Invitational Exhibition

< Some Form >

Alternative Space Loop, 2023. 2. 18 - 2. 27

Mijin Kim | Exhibition Director

The exhibition “Some Form”—an extension of an academic conference of the Korean Society of Art and Media titled, “What Do Sculptures Want? Regarding the Psychological, Existential, and Historical Aspirations of Sculptures” held in the second half of 2022—poses a question about expressive methods of art following the emergence of various new paradigms of contemporary art.

Today's art is more complex than art in any previous era because artists use real-time information on significant events such as climate, disasters, and wars as subject matter. In addition, the possibility of expression is endlessly expanding as the whole process of the artwork—from the conception of the idea to the finished outcome—is linked to place, communication, network, and platform. Even in the face of immense capital and the power of media, art still searches for the essence of the times and the true value of life with free imagination and in-depth introspection.

The linguistic integrity of the content and form in contemporary art is crucial. The artist explores the disciplines of philosophy, aesthetics, art history, and criticism in order to examine subjects closely connected to politics, society, environment, and daily life and develops a sophisticated, personal worldview. As such, contemporary art, subdivided according to individual identity and the spirit of the times, still has the characteristics of high art that creates its own language and style; therefore, professional education to disseminate art and communication with the public are crucial.

In the exhibition “Some Form,” ‘some’ corresponds to some, what in English and has the meaning of broadly and diversely encompassing subjects, themes, expressions, and discourses. ‘Form’ is an open form that encompasses the images of nature, human beings, and objects, as well as mental, spiritual, inner, and psychological images. The work of art is unconstrained because there is no need to specify the content and form within ‘some form’. Just as a drawing quickly brings a nascent thought to the surface of the paper, ‘some form’ reveals the poetic and sensuous aspects of unspecified, pure speculation. The artists’ thoughts and formative expressions, accumulated over a long period, will radiate their own free form and style by the unrestricted energy of ‘some form.’

“Some Form” encompasses all, from clear to unclear, ambiguous, and abstract form. Even ‘the forms that cannot be captured’ such as wrinkles, sponges, or fog are included. The exhibition, in which 30 artists from 6 countries participate, explores the inner side of our reality, questioning the meaning of existence through an uncertain era. Along with the experimental nature of the exhibition space Loop, this exhibition shows the delicate and dynamic art of this time in a vivid way.

‘어떤 형태 Some Form’에 관한 짧은 단상

이재걸 | 전시 큐레이터, 미술평론가

수잔 랭거(Susanne K. Langer, 1895-1985)는 자신의 유명한 예술상징이론서 『예술이란 무엇인가』에서 “예술가는 생(生)과 정념(情念)의 인상을 표현하는 형식으로서 그것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는 작품을 자연 세계와의 연결에서 단절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한다. 이 말인즉슨, 예술가는 그가 있는 자연 공간과는 연속 관계가 전혀 없는 허(虛)의 공간을 상상하고 창조해 냄으로써 예술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현실적 시각과 단절된 이 허의 공간은 지성으로는 발견할 수 없는 장소이기에 순수한 가상(假象)으로만 이해되어야 한다. 이렇듯 예술은 세계를 일반화하는 데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 오히려 예술은 주어진 현실 안에 다양한 형식의 의미를 쏟아부으며 보통의 언술로는 표현하지 못할 생명 경험의 심상(心像)을 포착한다. 예술은 ‘자연의 주관화’, ‘주관의 객관화’에 다름 아니며, 이를 통해 우리는 이성 상상의 힘을, 의미체계에 생명의 느낌을 부여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인가. 예술가는 물의 멈춰있는 상태를 모사(模寫)하는 게 아니라 호수의 잔물결이나 폭포, 파도와 같은 물의 운동 상태를, 산의 물리적 생김새나 공간적 배치를 재확인하는 게 아니라 산의 꿈틀거리는 표현성과 그 정서적 취의(趣意)를 발견한다. 인체를 대상으로 삼은 예술작품도 인간의 몸 자체 혹은 몸의 일반성을 추구하지 않는다. 몸에 형태를 부여하는 건 운동이며, 몸으로부터 나타나는 ‘어떤 형태(some form)’는 신체적 불변성의 결과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론적 개성에 따른 결과이다. 결국 예술은 대상의 다이내믹한 운동 형식, 즉 그것의 ‘살아있는 형식(living form)’을 표현한다.

예술가의 상상과 직관, 경험과 지식 등이 매우 복잡하게 뒤섞여 탄생한 하나의 형태는 주관의 양식화이자 그 깨어있는 존재론이며, 자연계의 물리적·기계적 공식으로부터의 해방이다. 신(神)이 아닌 이상 예술가가 창조하는 것은 새로운 사물이 아니다. 그가 창조하는 것은 바로 사물의 신비로운 잠재성이며, 이미지의 정신적 확장이다. 물론 어떤 이에게는 이러한 예술적 표현이 비현실적이고 무모해 보일 수 있다. 파괴적으로 보일 수도 있고, 그 자유로움이 너무 급진적으로 비칠 수도 있다. 하지만 예술은 ‘어떤 형태’라는 모호함 안에 ‘살아있는 형식’이라는 분명함을 담은 행위이다. 이 행위의 과정이 무척 낮설고 당황스럽지만, 참된 예술은 언제나 살아있는 형식의 리듬을 타고 있으며 그 정신적인 운동만으로도 우리는 무한한 변화를 예감한다.

다시 랭거의 주장에 귀 기울여 보자. 그에 의하면 예술가가 표현하는 ‘어떤 형태’는 “무정형(無定形)하고 혼돈된 것으로 생각되는 포착하기 어려운 현실의 형상을 정식화한 것”이다. 이는 주관적인 영역의 객관화이며, 따라서 한 예술가가 표현하는 건 자신의 현실적인 감정이라기보다는 그가 인식하는 인간 감정이다. 예술가는 작품에 인생관이나 내적 현실을 담겠지만, 그것은 공공연한 고백이나 억압된 울분의 해소와는 전혀 다른 것이다. 그의 ‘어떤 형태’는 고도화한 비유이자 순수한 가상으로서,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것의 의미를 찾아 구성하는 “비논변적 심벌”이다. 이때 예술가가 무엇을, 또는 어떤 물리적 현실을 기술하고 있는가는 생각보다 그리 중요하지 않다. 예컨대 고흐(Vincent van Gogh, 1853-1890)가 해바라기를 그렸는지, 사이프러스 나무를 그렸는지는 핵심이 아니다. 그의 그림에서 우리를 진정 감동케 하는 것은 ‘어떤 형태’를 산출하는 고흐만의 살아있는 형식, 바로 그 생(生)과 정념(情念)의 다이내믹한 리듬감이기 때문이다.

A Short Thought on ‘Some Form’

Jaeeol Lee | Exhibition Curator, Art Critic

Susanne K. Langer (1895-1985) states in her famous book on symbolism in art, Problems of Art, “The artist has to uncouple the work of art from connections to nature to make a viewer see it as a form to express the impression of life and human feeling.” In other words, the artist creates art by imagining and creating a virtual space that has no continuity with the actual space in which he stands. Since this virtual space, disconnected from realistic perspective, cannot be discovered by intellect, it should be understood only as pure virtuality. As such, art has no interest in generalizing the world. Rather, art captures images of life experiences that cannot be expressed with ordinary words, through various forms of meaning in a given reality. Art is nothing other than ‘subjectivation of nature’ and ‘objectification of subjectivity’, and through this, we can give the power of imagination to reason and the feeling of life to the meaning system.

That might explain why artists do not copy the still state of water but discover the state of motion of water such as the ripples of a lake, waterfalls, and waves; and they do not reconfirm the physical appearance or spatial arrangement of mountains but discover the dynamic expressiveness and emotional essence of mountains. Even works of art based on the human body do not pursue the human body itself or the generality of the body. The shape of the body is revealed through movement, and the “some form” that emerges from the body is not the result of bodily immutability, but of our ontological individuality. After all, art expresses the dynamic movement of an object, that is, its ‘living form’.

A form that is born from a very complex mixture of the artist's imagination, intuition, experience and knowledge is the stylization of subjectivity, its awakened ontology, and its liberation from the physical and mechanical formulas of science. Unless it is a god, what an artist creates is not a new thing. Artists create the mystical potential of objects and the mental expansion of images. Of course, to some, these artistic expressions may seem unrealistic and reckless. It may seem destructive, and the freedom may seem too radical. However, art is an act of putting the clarity of a ‘living form’ in the ambiguity of ‘some form’. Although the process of this act is very unfamiliar and embarrassing, true art always gets into the rhythm of a living form, and we sense infinite changes only with mental movement.

Let's listen to Langer's argument again. According to her, the ‘some form’ that the artist expressed is a “formulation of the elusive aspect of reality that is commonly taken to be amorphous and chaotic.” This is an objectification of the subjective realm, so what an artist expresses are their perceived human feelings rather than their own actual feelings. An artist may include a view of life or inner reality in the work of art, but that is completely different from an open confession or relief from suppressed resentment. Their ‘some form’ is a “non-discursive symbol” that articulates what is verbally ineffable as a developed metaphor and pure imagination. At this time, it is less important what—or what physical reality—the artist is depicting than one might think. For example, it is not a crucial matter whether Vincent van Gogh (1853-1890) painted sunflowers or cypress trees. What truly moves us in his paintings is the dynamic sense of the rhythm of life and feelings, which is the living form of Van Gogh's own ‘some form’.

김범수 Beom Soo KIM
South Korea



ti
d-print, diasec 50x60cm 2022

김범수는 홍익대학교에서 조소전공학사, 석사, 박사졸업. 파리 1대학에서 조형예술학 박사 준비과정(D.E.A)을 졸업하고 동대학원 박사 과정을 수료하였다. 2014 국립현대미술관 창동 국립창작스튜디오 입주작가, 2012-2013 양주시 장흥조각아뜰리에 입주작가, 1992- 2023 서울, 프랑스, 모스크바 등지에서 20회 개인전, 1988-2023 프랑스, 대만, 일본, 서울 등에서 150여회의 단체전을 통해 작품을 발표해 왔으며, 현재 공주교육대학교 미술교육과의 교수로서 예술과미디어학회 회장, 한국현대조각회 회장, 한국조각가협회 이사를 맡고 있다.

김성현 SUNG HEUN KIM
South Korea



Need something alternative to switch
waste plastic, transparent resin 68·73·59/45·45·32 2023

학력 밀라노 브레라국립예술대학 대학원 Fine Art 조소전공 졸업
개인전 10회(서울, 부산, 용인, 이탈리아, 독일)
단체전 200여회 이상(23개국 국제전시 40여회 참여)
현재활동 한국조각가 협회, 성남조각가 협회, 전국조각가 협회, 예술과미디어학회 회원

김재남 Jaenam Kim
South Korea



짜늘하게 혹은 사랑스럽게 #4
동물의 사체 털, 나무, 시계, 주사위, 돌, 사진, 실, 쇠구슬, 고무 밴드
오브제_가변 설치 2023

홍익대학교 회화과 졸업 및 동 대학원 석사, 박사 졸업
2022 공기와 바람의 조각-1000일간의 기억과 기록(GS칼텍스 예술마루, 여수)
2019 달을 수 없는 지점, 보이지 않는 시점(쉐마미술관, 청주)
2012 노스텔지어 프로젝트(홍익대현대미술관, 서울)
2006 표류하는 영웅들 프로젝트(금호미술관, 서울)

남기성 Gi Sung Nam
South Korea



이빨자국Series 갈비탕#01
사진, Pigment Print 80cm x 100cm 2022

2022 개인전 <이빨자국>, 수원미술 만석전시관, 수원. 등 개인전 8회
2022 수원국제예술프로젝트 온세미로, 수원미술 만석전시관, 수원 단체전 300여회
2022 다부동 예술구하기 전, 오모크갤러리, 왜관
2022 자연과 환경, 아트린뮤지엄, 포천
2020 하나의 길 하나의 꿈, 여주미술관, 여주

박가연 Gayeon Bahc
South Korea



Nirvana

싱글 채널 비디오, 4K UHD, 9m 50s, 반복재생, 2022

홍익대학교 조소과 및 동대학원 석사 졸업, 박사 재학중
개인전 4회, <강릉국제아트페스티벌, 2022>, <거름 내는 소리>(산지천갤러리, 2022), <폐기
의 기술>(시청각랩, 2021), <태화강국제설치미술제, 2020> 등 단체전 20여회.
2022 소마미술관 아카이브 선정작가
2017 양주시립 장욱진미술관 뉴드로잉프로젝트 대상수상

박지나 Jina Park
South Korea



흔들리는 언어 Oscillation of Language

단체널 영상 00:12:37 2019

홍익대학교 일반대학원 미술학과(조소전공) 박사
2020 Touching the Void, Choijungah Gallery, Seoul
2019 Afterlife of Language, Post Territory Ujeongguk, Seoul
2018 Dictation, Choijungah Gallery, Seoul
2017 supplement; fragments, Seoul Art Space Mullae, Seo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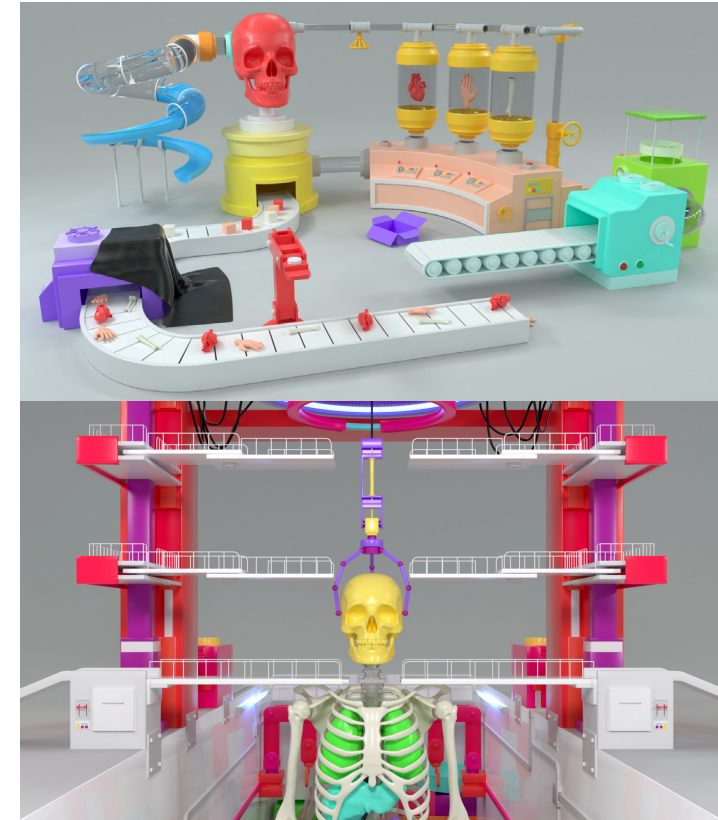
박천욱 Cheonwook Park
South Korea



주체롭게37_모순정원 부조
Autonomously37_Contradiction garden relief
stone, plated metal 13x22x3.5cm (부조형식) 2022

홍익대학교 조소과 및 동대학원 석사, 박사 졸업
개인전 8회, 단체전 50여회
2015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입주작가_서울시립미술관
2012 금천예술공장 입주작가_서울문화재단
서울교육대학교 조교수

방정호 Jungho Bang
South Korea



Organ Factory
3D Animation 2'00" FHD 2021
Assembly Line
3D Animation 5'06" FHD 2022

2023 영남대학교 대학원 트랜스아트과 졸업예정
(총5회) - 2022 'Selective Evolution' BONA Gallery, 대구
(다수) - 2021 YAP'21 청년미술프로젝트 '젊은 거장展', 대구 EXCO
(수상5회) - 2018 Somerville International Film Festival_Best Animation, 미국
2017 Boomtown Film&Music Festival_Experimental / Music Video 부문 심사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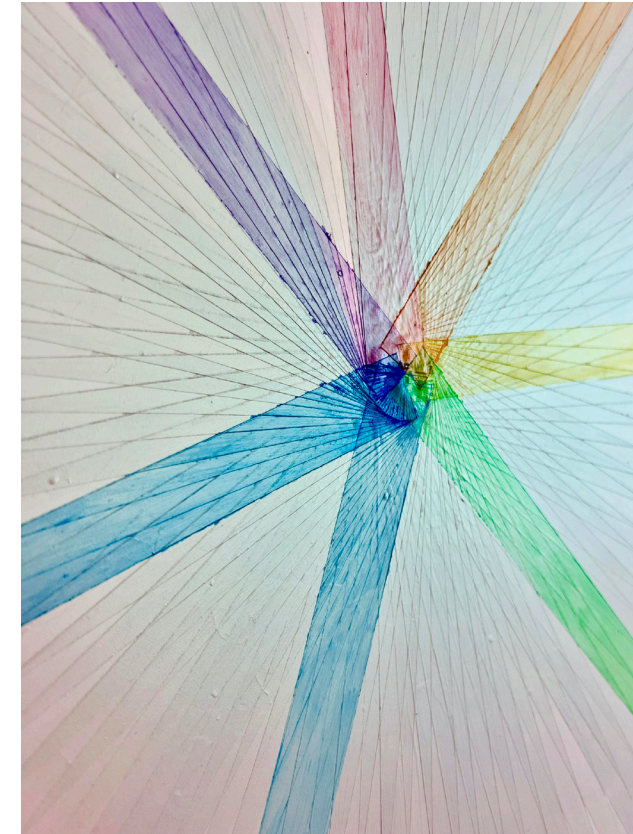
백근영 KeunYoung Baek
South Korea



기호의 언어 I (A Vocabulary of Signs I)
장지에 채색, 콜라주 40x85cm 2022

동아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부 회화전공(한국화)졸업
동일반대학원 미술학과 석사, 박사 졸업(미술학 박사)
개인전 7회, 단체전 다수
現 동아대학교 현대미술학과 한국화 전공 강사, 예술과 미디어 학회 회원,
부산미술대전 초대작가, 부산미술협회 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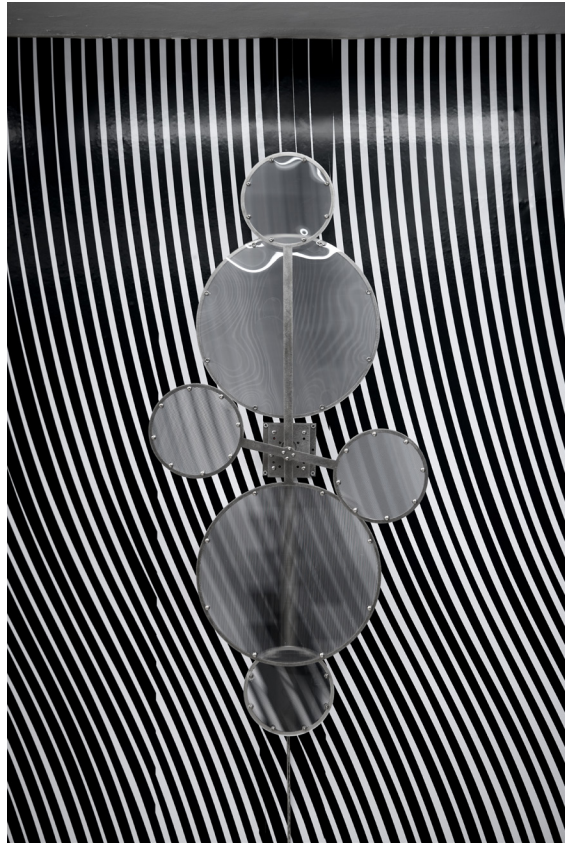
변의숙 Uisuk Byeon
South Korea



Lucky Number 7 Rainbow
Acrylic on panel 40 x 50 cm 2022

Doctoral Candidate_Columbia University's Teachers College, Art and Art Education EdM
2009_MFA_Drawing and Painting_School of the Art Institute of Chicago
2022 Then & Now, Macy Gallery, New York
2021 Reorientation, ATP gallery, New York
2020 (Solo) Emerged, Seoul Il Sam Gallery, Seoul

신승연 SEUNG YUN SHIN
South Korea



Round and Round
lenticular lens, stainless steel, bearing motor device
dimensions, variable 2022

홍익대학교 일반대학원 미술학과(조소전공) 박사
2022 <Ghostly Gaze>, 갤러리오뉴월, 서울
2021 <onFlow>, 탈영역우정국, 서울
2020 <I My Me...Mine>, 올댓큐레이팅, 서울
2019 <Portrait of Experiment>, West Creek Gallery, 리치몬드, 미국

오태원 Taewon Oh
South Korea



Candy drops
Mixed Media 52x35x35cm/좌대높이70cm 2022

홍익대학교 대학원 디자인·공예학과 시각디자인전공 박사졸업(미술학박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서양화과 석사졸업(미술학석사), 프랑스 국립파리8대학교 조형예술학과 학사 및 석사 졸업. 개인전 2022 '10 Drops', 구산아트센터, 광주. 2021 'Drops Flanar', Seun Art Space, 서울. 그 외 19회 개인전, 주요그룹전 2022 'DX Life'(Drops Mechanism), 서울시+KT 미디어 아트 공모전 수상작 전시, 세종문화회관 미디어월, 서울. 2022 'COMPARAISONS 2022', Le Grand Palais Ephémère(파리 그랑팔레), 프랑스 파리. 그 외 200여회 그룹전 참여

윤희수 Hee Soo Yoon
South Korea



감각의 발굴 조사

metal, tin, mixed media 180cm*76cm*25cm 2023

Constanța

sensor light, metal, tin, 1m80cm*40cm 2022

2021- 홍익대학교 일반대학원 미술학과, 조소전공, 재학중
2019-2021 홍익대학교 일반대학원 조소과, 석사 졸업
2015-2018 프랑스 니스 국립예술학교, 조형예술과, 학사 졸업
(École Nationale Supérieure d'Arts à la Villa Arson)
2023 <sonorifaction, 부동하는 __ >, 갤러리H, 서울
2021 <À la recherche du __ caché, 숨은 __를 찾아서>, 임시공간, 인천

이수홍 Soohong Lee
South Korea



안과 밖- 그 사이

나무 37x37x11cm(each) 2011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및 동대학원 졸업/ Pratt Institute 대학원 졸업
개인전 19회 및 단체전 230여회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조소과 교수/ 재)아름다운맵 이사장

이연숙 Yeon Sook Lee
South Korea



Mother and mother
00:02:17" 단채널 영상 2020

2020 홍익대학교 일반대학원 미술학과 (박사)졸업
2008 Goldsmiths College, University of London, Fine Art(MFA)졸업
2022 셸러드볼, 문화비축기지 T2, 한국문화예술위원회&아트엔테크 지원사업, 서울시, 문화비축기지 후원
2021 프로토타입_기억공간_몸 소리 문, 대안공간루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아트엔 테크 지원사업
2022 채널:입자가 파동이 되는 순간, 창원조각비엔날레, 성산아트홀, 창원
2021 천애하는 빅 브라더_다시는 결코 혼자일 수 없음에 대하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창조원 복합6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원, 광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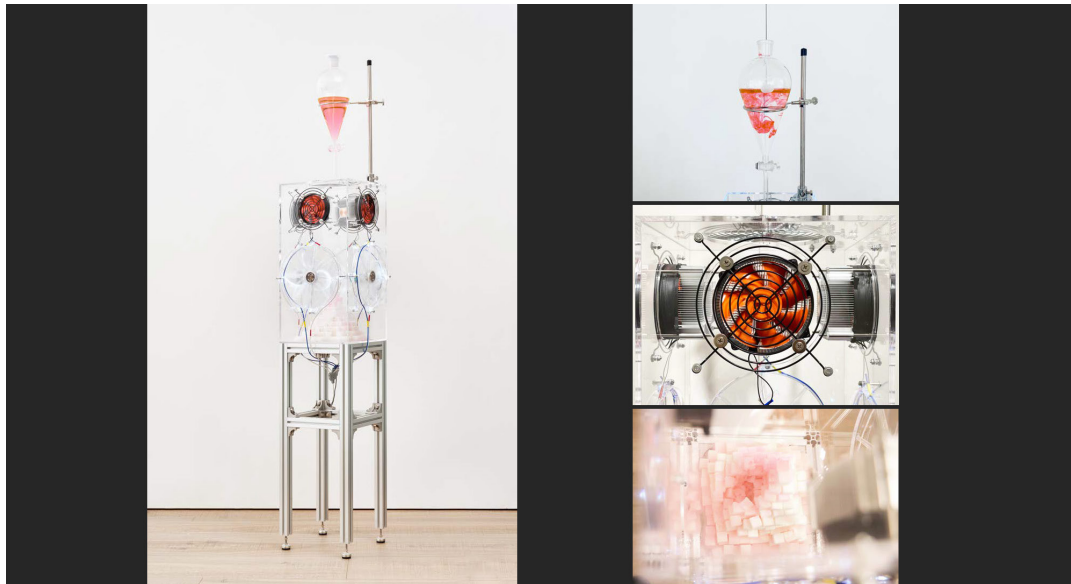
이주현 Ju Hyun Lee
South Korea



untitled
mix media 30x30x18cm 2012

2009 홍익대학교 조소과 학, 석사 졸업
2021 개인전, Hyperobjects, 비트리 갤러리, 서울
2019 'Parallel'전, 평택호미술관, 평택
2015 개인전, 갤러리 파비온드, 서울
2014 개인전 'Incubation period'- 유중 아트센터, 서울

이지훈 Jihoon Lee
South Korea



실험체 2-A: OO의 소멸시효
Acrylic box, Led fan, Microphone, Speaker, Mixed media
100 × 20 × 20cm 2022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조소과 학사, 석사, 박사재학.
개인전 2022 본질의 소멸시효 (스펙트럼 갤러리, 서울), 2021 기형적 인식 (갤러리뎀, 서울)의 5회
단체전 2022 Welcomegeneration (예술의전당한가람디자인미술관, 서울), 2022 정레브리 평14시,27일'(대구예술발전소, 대구), MovingID (경기아트센터, 경기)의 40여회
2018-2019 Cité internationale des Arts, Paris, France 입주작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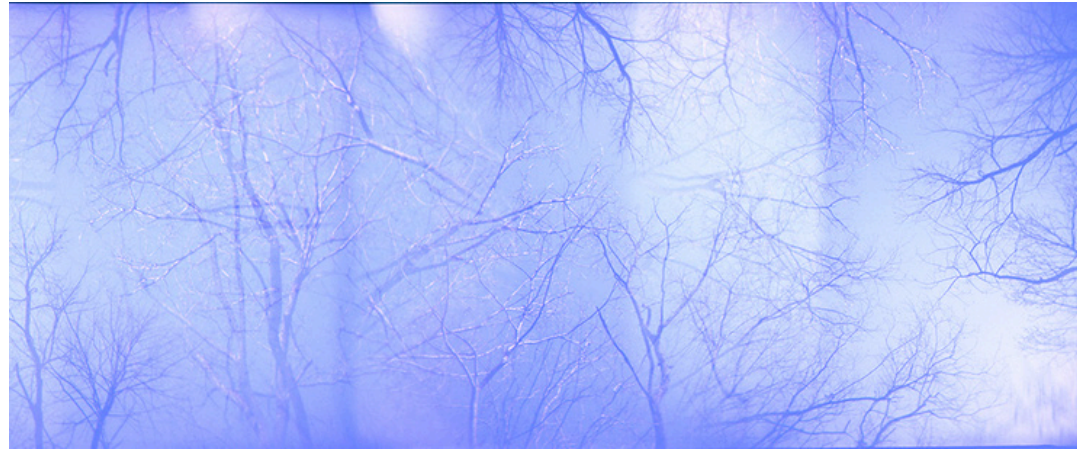
이채빈 Chaebien Lee
South Korea



나는 네 번 태어난 기억이 있다.
silicone, resin, glass, acrylic, latex, bubble Wrap, pvc vinyl, tape
설치 (가변 크기) 2022

건국대학교 현대미술학과 졸업
건국대학교 대학원 현대미술학과 재학 중
개인전 2021 <풀은 각기 다르게 물을 주어야 한다.> 갤러리 빈칸 서울
단체전 2022 7.38215631 뎀센드 갤러리 서울, 2020 WOMAN 갤러리 원 서울, 2018 기질전 갤러리 라메르 서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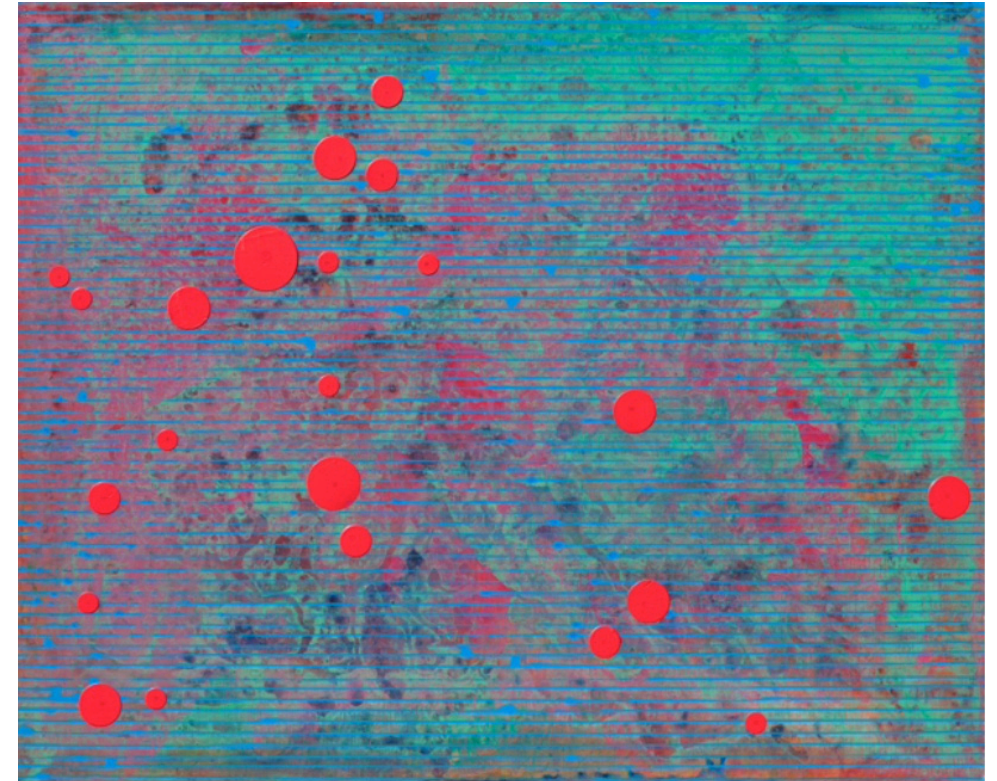
이태훈 Tae Hoon Lee
South Korea



Parallel Space No.44.2
Digital Print 25.5(h) X 61(w) cm 2023

숭실대학교 박사수료
MFA, MS Pratt Institute
BFA School of Visual Arts
개인전 10회 및 단체전 다수

이한수 HAN SU LEE
South Korea



1928 알골 안드로메다
acrylic on canvas 72.5X91cm 2019

2001.10 - 2002.10 독일 브라운슈바이크 미술대학 마이스터슐러 졸업
1996.10 - 2000.10 독일 브라운슈바이크 미술대학 졸업
2021.10.5 - 11.3 / 디지털 시그널(Digital Signals) 미디어아트특별전시 은암미술관
2020. 10.22 -11.08 / 강원키즈트리엔날레 2020 (외동분교) 강원도 홍천군
2019.12.9 -19 / 이미지_역사와 인간사이 (Image_between History and Human being)토
탈미술관

임수빈 Subin Lim
South Korea



ego
mixed media 100*120*160 mm 2023

홍익대학교 조소과 박사과정수료
중국노신미대 대학원 조소과졸업
2021 Embodied mind, Massan gallery, 창원
2020 looking awry, Gallery kosa, 서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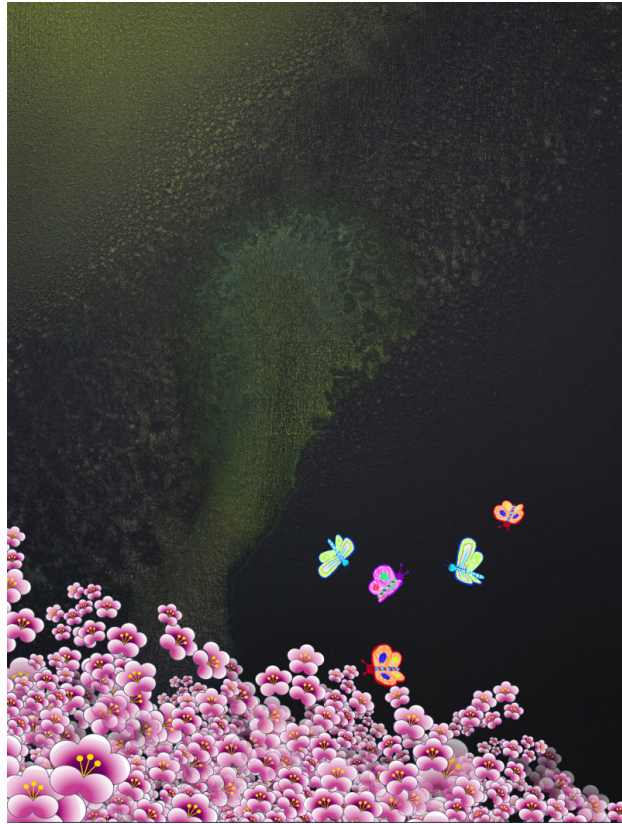
정수용 Soo-yong Jung
South Korea



Two Heads
90x60x30cm(좌대포함)
석고, 나무 2019-2023

現 홍익대학교 박사과정 재학
개인전 2020 <두꺼운 세계: 구호의 미메시스> (룬트갤러리/서울) 2011 <Tuneless> (미술공간 현/서울)
단체전 2017 기획초대 <Human> (내셔널공공미술관/강원도) 기획초대 <감각의 언어-몸> (무안군오승우미술관/전남)

최철 Chul Choi
South Korea



꽃향기 날던 날
Digital printed on paper 92x8x68.5cm 2023

개인전 43회, 단체전 300 여회
2023 “시공간, 기억일기 읽기”개인전, 갤러리 김넷과 영무과라드, 부산.
2022“기억 속을 거닐다”개인전, 반디트라스, 서울.
2021 “에이!아이?, 유기된 마네킹”개인전, G&J갤러리, 서울.
파리 1대학 판데옹 소르본 조형예술학 박사.
현) 국립 한국교원대학교 미술교육과 교수 재직.

추은영 Eunyoung Chu
South Korea



Mirage
Mixed Media 110·80·80 cm 2023

홍익대학교 대학원 미술학과 조소전공 박사졸업, 성신여대 대학원 컴퓨터학과 박사수료, 동 대학원 조각전공 석사졸업, 홍익대학교 조소과 졸업, 신화예술고등학교 졸업
기획초대 및 개인전 8회, 국내외 기획초대 및 단체전 90여회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성신여자대학교 강사역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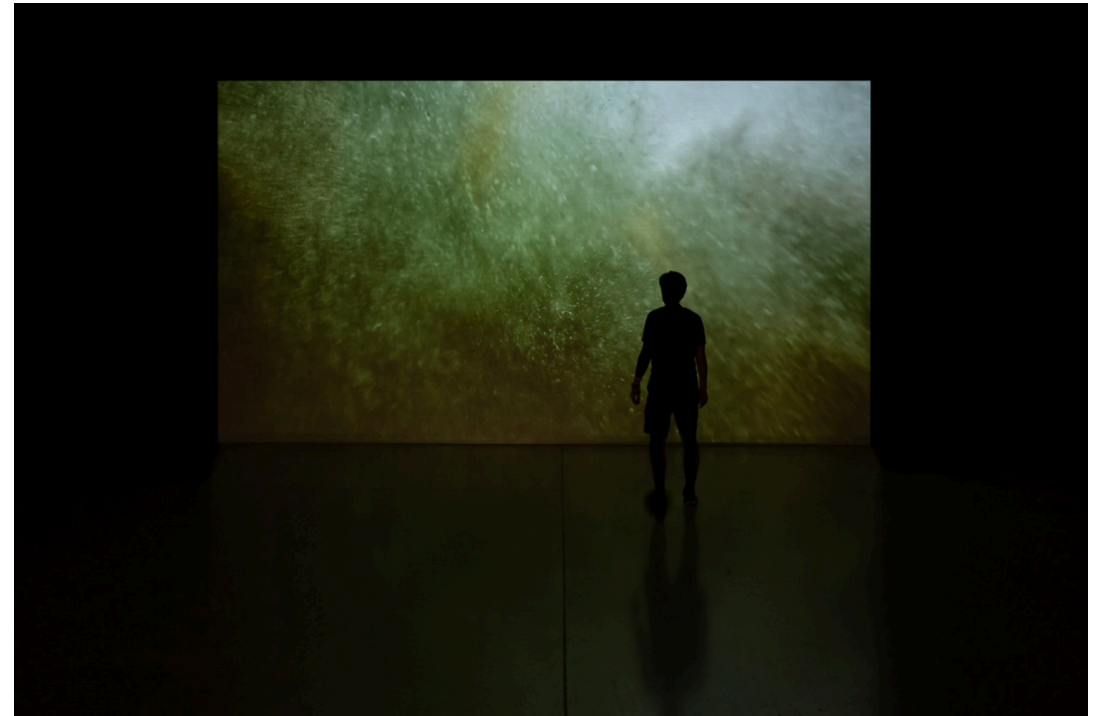
한승구 Seung-ku Han
South Korea



Mirror Mask #C – Beigins
NFT Full 3D animation 1920 * 1080pixels 2022

서울대학교 미술 대학 조소과 졸업(2005), 서강대학교 영상 대학원 예술 공학과 졸업
(2009), 국민대학교 입체 미술과 박사 졸업(2016)
2022 인터뷰 3650 storage, 서울미술관, 서울
2022 서울미디어위크, 미디어파사드, 클립드롭스
2021 횡단하는 물질 세계, 아르코미술관, 서울
2020 나 자신의 노래, 사비나미술관, 서울
2020 From the past, 이탈리아 한국문화원, 로마, 이탈리아

Chris Myhr
Canada



Fathoms: The Weight of Smoke
FHD Video 12 minutes 5 seconds 2018/19

Simon Fraser University (BA); University of Lethbridge (BFA); NSCAD University (MFA)
Solo Exhibitions (2020-2023):
McMaster Museum of Art, Salients (Hamilton, Canada); Prefix Institute for Contemporary
Art, Ab-Solutes (Toronto, Canada); Smokestack Gallery, Vessels and Suspensions
(Hamilton, Canada)

Irene Pérez Hernández

Spain



Symphony in Yellow Lines

stop motion 1 min 11 sec 2020

Irene Pérez Hernández is a Spanish artist living and working in the Black Forest in Germany. In 2008 she graduated with a MFA Fine Art from Goldsmiths, University of London. Exhibitions include Decad Berlin, UMU Murcia, Simultanhalle Cologne, Tenderpixel London, CCCC Valencia, CDAV Havana. She had residencies at Kunstverein Global Forest, Cambridge School of Art and grove Bury St Edmunds. For 2023 she received a stipend from Stiftung Kunstfonds Bonn. Her work is in the collection Fondo de Arte UPV

I Ting Hou

Taiw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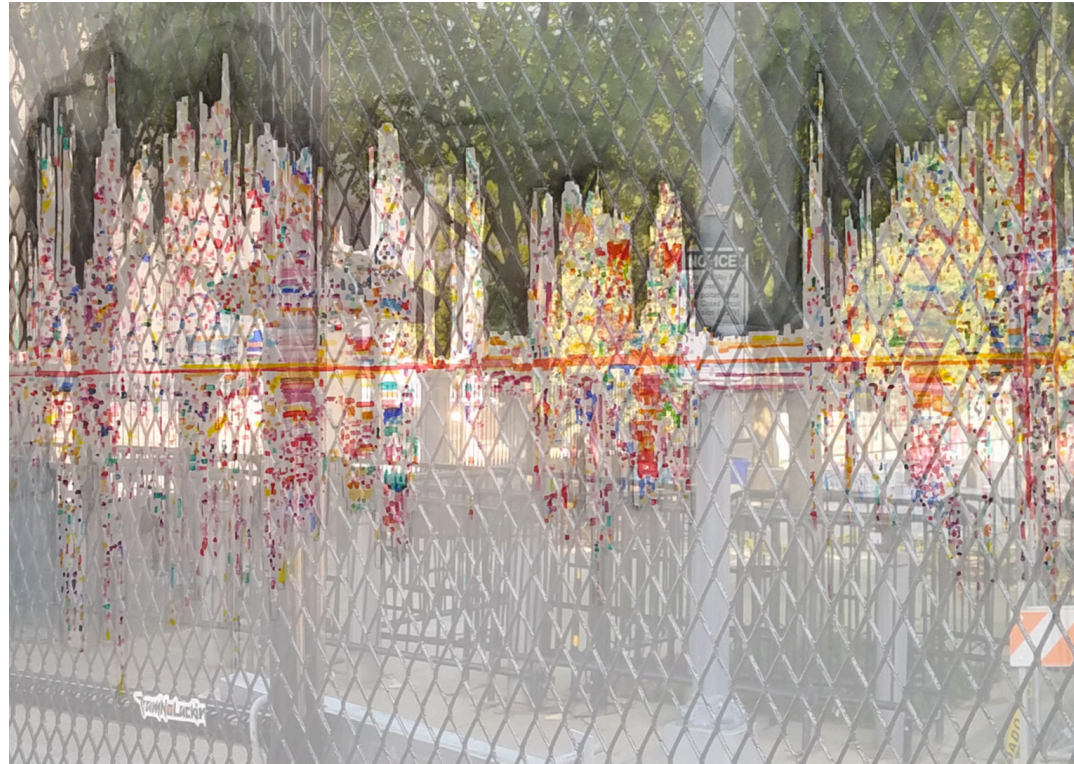


Neither of Us – The relation of non-territory

Single- Channel Video 02'08" 2013

HOU I-Ting received a degree from the Taipei National University of the Arts. She has exhibited internationally including solo exhibition in MILL6CHAT Hong Keng(2021) ;Centro de Historias De Zaragoza Spain (2019) ;Taipei Fine Arts Museum Taiwan (2019).Group exhibition in Kunstmuseum Wolfsburg Germany (2022); Changwon International Sculpture Biennale South Korea (2022); Jakarta Biennale Indonesia(2022); 21st Century Museum of Contemporary Art, Kanazawa, Japan (2019); Centro Cultural La Moneda, Chile (2019) 9th Asia Pacific Triennial of Contemporary Art, Australia(2018)

Michal Gavish
USA



STREAM

Animation Video 6 minutes 2021-23

Solo: LIU Brooklyn, The Delaware Contemporary, Budapest Museum, Garrison Center, NY; Hillyer DC; Hood College Tatem ArtCenter, MD; Group: 2022 Changwon Biennale; Biobat, Brooklyn; Stanford University; Yerba Buena SF; Sonoma Museum; Zero1 Biennale CA; Tachles, Berlin; Residencies: Leipzig, Germany; Budapest Multicultural; Cooper Union NY

Simone Hooymans
Netherlands



Chapel of Very Small Creations

Animation 7 min. 2022

2004 - 2005 Postgraduate st.Joost, Breda, Fine Art, the Netherlands (MA).
1998 - 2002 Art academy HKA Arnhem, Fine Art, the Netherlands (BA).
2022 Gallery Dropsfabrikken Trondheim, Norway
2022 Changwon Sculpture Biennale, South Korea
2022 Changwon Sculpture Biennale residency, South Korea

주최/주관
사단법인 한국영상미디어협회
예술과미디어학회

후원
대안공간 루프

전시감독
김미진

총괄 큐레이터
이재걸

큐레이터
신승연, 이연숙

코디네이터
박가연, 이지훈

번역
변의숙

